

# 『度支準折』에 기록된 조선 말기 平絹織物에 관한 研究

조 호 숙\* · 이 은 진<sup>+</sup>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배화여자대학 전통복식과 강사<sup>+</sup>

## A Study on Plain Weaved Silks at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Shown in *Takjijunjeol*(度支準折)

Hyo-Sook Cho\* · Eun-Jin Lee<sup>+</sup>

Professor, Dept. of Clothing, Kyung Won University\*  
Instructor, Dept. of Traditional Costume, Baewha Womans College<sup>+</sup>  
(2003. 4. 30 투고)

### ABSTRACT

The character of Plain Weaved Silks at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from *Takjijunjeol*(度支準折) are as follows.

1. Plain Weaved Silks recorded in *Takjijunjeol*(度支準折) are *Ju*(紬) 22 types, *Cho*(絹) 13 types and *Gyeon*(絹) 3 types. This is same as previous research where *Ju*(紬) and *Cho*(絹) were subdivided and diversified at the end of *Joseon* Period, but *Gyeon*(絹) gradually disappeared, leaving only *Ju*(紬) and *Cho*(絹).

2. Plain weaved silks whose character have been examined are *Gaejju*(改只紬), *Nojuju*(潞州紬), *Nobangju*(潞方紬), *Bangsaju*(方絲紬), *Simnyangju*(十兩紬), *Hapsaju*(合絲紬), *Suju*(水紬), *Toju*(吐紬), *Sukcho*(熟絹), *Ryeoncho*(練絹), *Gungcho*(宮絹), *Byeolmungoyeongcho*(別紋庫英絹), *Hujigyeon*(厚紙絹).

3.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values and value scales written in *Takjijunjeol*(度支準折), *Ju*(紬) had various kinds of silks and *Ju*(紬) are classified by qualities into two groups, the higher qualified group A or the lower qualified group B. On the contrary, *Cho*(絹) and *Gyeon*(絹) had only a few kinds, not as many as *Ju*(紬), but all were high quality. Among them the most valuable plain weaved silks were *Seoyangmunju*(西洋紋紬), *Hapsaju*(合絲紬), *Byeolmungoyeongcho*(別紋庫英絹).

4. According to *Pobaekcheok*(布帛尺) of *Takjijunjeol*(度支準折) which shows real sizes, *Ju*(紬) had various length and widths, but *Cho*(絹) had one unified length and width.

Key words: Plain Weaved Silks(평견직물), *Ju*(주), *Cho*(초), *Gyeon*(견), *Takjijunjeol*(탁지준절).

## I. 서론

전세유품과 출토복식은 당시의 의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출토복식과 전세유품을 통하여 수없이 다양한 조선시대의 직물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계승·사용되어 온 몇몇 종류의 전통직물 외에는 그 유물의 정확한 명칭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유물들의 제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실물 자료의 특성을 분석한 후, 당시의 문헌을 참조하여 비교·고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재 유물들의 밀도·조직법 등의 실물분석은 어느 정도 측정·기록되어 축적되고 있으나,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문헌고찰 작업은 많이 부족하다.

특히 평견직물은 조선시대 출토직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제작방법이 단순하여 평가절하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실의 품질 이외에는 직물의 종류를 세분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명주'라고 총칭하였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면서도 가장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평견직물, 즉 紬·絹·絹의 특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조선 말기의 문헌 자료에 기록된 紬·絹·絹의 명칭·가치·길이·폭·용도 등을 비교·분석하여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평견직물에 타당한 명칭을 찾아 명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度支準折』<sup>1)</sup>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조선 말기 궁중에서 사용된 물품의 목록과 수량을 기록한 『불기』<sup>2)</sup>와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일제강점기의 『朝鮮彙報』<sup>3)</sup>를 참조하였다. 『度支準折』은 조선 말기 국가재정 전반을 담당하던 度支部에서 물자 수급과 物動計畵 등을 위하여 왕실과 각 관청, 각 지방의 감영과 부·군·현 등에서 소요되는 물자의 자료를 항목별로 분류·정리한 책이다. 물품을 관장하는 관아 중 1882년(고종 19)까지 존속하였던 內資寺·司宰監·司圃署·瓦署·造紙署 등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1882년 이전에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며<sup>4)</sup>, 당시 통

용되고 있던 주요 직물의 명칭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조선 말기 직물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史料로 판단된다.

『度支準折』에는 많은 종류의 紬·絹·絹이 기록되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록된 빈도수가 높고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 현 상황에서 특성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물만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 II. 조선시대의 平絹織物

평견직물은 제작방법이 단순하므로 직물의 종류를 세분할 때 제작법의 다양성보다는 사용된 실의 품질에 따라 구분한다. 고대에는 평견직물의 종류가 絹·紬·絹 이외에 紗·縵·帛·縞·縠·縠·縠·縠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sup>5)</sup>. 그러나 직물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의미하는 바도 변천되어, 관련 선행연구의 문헌자료 분석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紬·絹·絹의 세 유형으로 집약되었다<sup>6)</sup>.

우리나라에서 紬와 絹에 대한 구분은 일찍이 『三國史記』의 흥덕왕 복식금제와 『高麗史』 등에 기록되었으며, 紬에 비하여 絹이나 絹가 품질이 우수하고 고가의 직물이었다<sup>7)</sup>. 『朝鮮王朝實錄』에는 중국 사신들이 중국의 生官絹·彩絹·色絹 등을 가지고 조선에 와서 각색의 綿紬로 교환하였던 사례가 많이 있다<sup>8)</sup>. 그러나 조선 후기부터 絹의 유입은 점차 없어졌고 潞州紬·方絲紬·宮紬와 같은 고품질의 紬 종류가 중국에서 왕실이나 사신에게 사여한 예물 목록 등에 빈번히 등장하였다<sup>9)</sup>.

조선 전기 문헌에 나타난 紬의 종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였던 綿紬가 대표적이고 그 외의 명칭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紬의 명칭은 다양해져서 18세기 중엽의 『尙方定例』나 19세기 초의 『萬機要覽』에는 絹 종류는 거의 없어지고 紬 종류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紬의 종류는 시대가 늦어질수록 더욱 다양해져 19세기의 『불기』에는 20종류 이



목의 본문과 雜錄의 60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sup>17)</sup>. 본문의 각 항목은 匹緞綾絹絹·紬紵木布綿·袷袴巾衣裳·各色絲繭·索綯·紙地·筆墨·席子·染物·入染物種·皮物·毛鬣·牙角·珠玉寶石·彩色·唐藥材·鄉藥材·唐餅果茶膏·金銀·鐵絲·銅鐵·鐵物·木物·木柳器·草物·竹物·盤沙器·瓦甌·灰石土·畜物·肉物·魚物·昆藿茸藥屬·菜蔬·果物·穀物·熟造作末·油清蜜·塩醬酒醋·塩卵·雜種貿易·祭燭龍脂·靴鞋·冠帶·樂工服色·祭服·輦牽陪服色·守別隸羅服色·寢茵·假家·匠料·陵園墓物種·扇花子·館學儒生役只·觀武才賞格木·殿內排設·成器物種·祭享式·奉審式이며, 雜錄에서는 앞의 큰 항목에서 제외된 사항을 80여 개 항목으로 세분하였다. 가격은 대개 米·木·錢을 기본적인 교환수단으로 기재하였으나 고급품의 경우는 銀으로 표기하기도 하였으며, 折價를 함께 표시한 경우도 있다<sup>18)</sup>.

『度支準折』에서 얻을 수 있는 직물에 대한 정보는 명칭·가치·길이·폭·색·용도 등이다. 특히 『度支準折』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각 직물의 가치이므로, 본 논문은 직물의 명칭과 가치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길이·폭·용도에 관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다루었다<sup>19)</sup>. 직물의 가치는 錢(國良·諸良·折價·染折<sup>20)</sup>), 米(染米·元米<sup>21)</sup>), 木(質地木<sup>22)</sup>·質下地木<sup>23)</sup>·染玄木<sup>24)</sup>) 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錢은 兩·錢·分·厘·戶의 단위로, 米는 石·斗·升·合의 단위로, 木은 疋의 단위로 기록되어 있다.

『度支準折』에서 사용된 布帛尺은 47cm로, 이 수치는 『度支準折』 雜錄에 나와 있는 실제크기의 자 <그림 1><sup>25)</sup>에서 산출하였으며, 經國大典 記錄尺度·영조 26년 改尺度·순조 20년 厘正周尺時尺度 등의 46.8cm와 유사하다<sup>26)</sup>.

## 2. 平絹織物の 종류

『度支準折』에 기록된 평견직물은 紬·絹·絹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의 가치척도 표기단위를 살펴보면 絹와 絹은 모두 國良·諸良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紬는 國良·諸良을 사용한 그

룹 A와 折價·米·木을 사용한 그룹 B의 두 경우로 나누어져 있으며, 두 경우를 중복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紡絲紬뿐이다<sup>27)</sup>. 그런데 『度支準折』에서 고급품의 가격은 銀으로 표기하였으므로, 같은 평견직물 내에서도 銀을 통속적으로 이르는 良<sup>28)</sup>으로 가치를 나타낸 絹와 絹은 고가의 직물이었을 것이며, 紬는 고급인 그룹 A와 저급인 그룹 B 그리고 두 경우를 중복 사용한 紡絲紬와 같은 중급 紬로 세분되었을 것이다.

또한 1尺당 가치를 살펴보아도 絹는 諸良1錢2分7厘(白生絹)에서 1兩(草綠別紋庫英絹), 絹은 諸良1錢8分(藍厚紙絹)에서 2錢5分(白通絹)의 비교적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紬는 두 그룹으로 구분되어 그룹 A의 고급 紬의 가치는 絹·絹과 비슷한 수준인 諸良1錢1分에서 1兩 정도였으나, 그룹 B의 저급 紬는 諸良2分7厘3戶[≒錢1錢7分1厘]에서 1錢4分3厘5戶[≒錢8錢9分7厘2戶] 정도로 현격히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볼 때, 紬는 직물의 종류가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가치 또한 최저급부터 최고급까지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絹는 종류가 紬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가치가 높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모두 그룹 A 즉 고급 紬 수준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또 絹은 3종류만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가치는 고급 紬 수준이었다.

### 1) 紬

#### (1) 紬의 명칭

紬의 명칭으로는 紬·改只紬·輕光紬·潞方紬·潞州紬·綾只紬·方紬·方絲紬·西洋紋紬·十兩紬·合絲紬·花方紬·花紗紬·花禾紬·卽于紬·上紬·中紬·貢紬·綿紬(經用綿紬·倭人禮單綿紬·勅使禮單綿紬)·水紬(8升水紬·9升水紬)·鼎紬(7升鼎紬)·吐紬 등 22종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이와 같이 『度支準折』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紬의 특성을 규명할 수는 없으며, 근거를 밝힐 수 있는 참고문헌 등을 통하여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改只紬에서 ‘改只’는 ‘[기]개[기]개[기]개[기]’의 순으로 변화된 표기<sup>29)</sup>인데, ‘개[기]’는 솔기를 곱솔로 박

아 옷을 만드는 바느질법을 뜻하는 단어이므로, 改只紬는 솔기를 주로 곱솔로 처리하는데 사용하였던 紬의 일종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度支準折』에 따르면 폭은 8寸[37.6cm]이었으며, 白·草綠·紅·紫의·柳靑·藍·黃 등 색에 따라 1尺당 國良3綫에서 3綫3分, 諸良1綫3分에서 3綫2分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潞州紬는 중국의 유명한 견직물 산지인 山西城路安 지방에서 생산되었던 고급 紬인데, 상품품의 견사를 사용하여 지질이 치밀하고 촉감이 부드러운 직물로 土庶 男女의 便服에 많이 사용되었다<sup>30)</sup>. 『殯殿都監儀軌』 등의 문헌에 유문노주주·운문노주주·화문노주주라는 기록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이미 1600년경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문양이 있는 노주주도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度支準折』에 따르면 폭은 9寸[42.3cm]이었으며, 白·豆綠·柳綠·草綠·朱黃·多紅·紫의·藍·黑 등 색에 따라 1尺당 國良2綫3分, 諸良1綫7分에서 2綫3分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潞方紬는 ‘潞’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潞州紬’처럼 중국 路安 지방에서 수입되었던 紬로 생각되며, ‘方’이라는 글자를 통하여 볼 때 현재의 노방주처럼 方形的 공간이 있는 성근 직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말기의 『불괴』에는 당시 사용되었던 수많은 직물의 명칭과 용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노방주’ 혹은 ‘노방’이라는 명칭은 몇 군데 기록되어 있으나 그 용도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 흔히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915년에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朝鮮彙報』에는 ‘生老紡紬’, ‘生老紡’라는 명칭과 함께 생노방주가 생삼팔주보다 약간 두껍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흰색을 내기 위하여 생노방주를 가볍게 정련한 숙노방주는 숙노방 혹은 白老紡紬라 하여 하부타에[羽二重]와 비슷하고 삼팔주보다 두껍고 폭이 1尺3,4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노방주는 통상 얇고 까슬까슬한 현재의 노방과는 다른 유형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度支準折』의 기록에 따르면 1尺의 길이가 22尺[1034cm]이었으며, 1尺당 가치는 諸良2綫5分(紅), 諸良4綫(紫의) 정도였다.

方絲紬는 견방사의 일종인 紡絲로 제직되었던

직물로 중국의 湖州(지금의 남경)의 특산물이었다<sup>31)</sup>. 1689년에 간행된 『宋書續拾遺』에 수의용 옷감으로 方絲紬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sup>32)</sup>. 1690년(숙종 16) 경에 편찬된 중국어 어휘사전 『譯語類解』에는 한자로 ‘紡絲紬’라는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로 중국어 발음이 표기되어 있으나 우리말 뜻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중국 한자 발음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33)</sup>. 『度支準折』에 따르면 1尺의 길이는 16尺[752cm]이었으며, 폭은 1尺[47cm]으로 改只紬나 潞州紬에 비하여 넓은 편이었다. 1尺당 가치는 白·玉·草綠·多紅·桃紅·木紅·紫的·柳靑·藍·黃·灰·黑 등 색에 따라 國良1綫5分에서 2綫5分, 諸良1綫4分에서 2綫5分 정도였다.

十兩紬는 제직상의 특징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十兩’이라는 글자를 통하여 볼 때 직물의 무게에 따른 명칭인 것으로 생각되며 『불괴』에 옥량주·팔량주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비교적 무거운 紬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굵기·무게 등의 면에서 사용된 원사의 양이 많을수록 가격도 높아질 것이므로 十兩紬는 옥량주·팔량주 등에 비해 값이 비싼 紬였을 것이다. 또, 『朝鮮彙報』에 ‘三兩納는 1寸[≒3cm]<sup>34)</sup> 사이에 경사 34-35울, 위사 20울 內外의 아주 粗한 직물’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十兩紬는 밀도가 높은 직물이었을 것이다. 폭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다른 紬와의 정확한 가치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색에 따라 1尺당 諸良1綫5分(藍), 諸良2綫6分(品藍)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合絲紬 수준의 최고가 紬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合絲紬는 『五洲衍文長箋散稿』의 기록에 의하면 명주의 일종으로 평안도 영변의 특산물이었다. 명칭상에 나타나는 ‘合絲’라는 글자를 통하여 볼 때 경사 또는 위사에 2울 이상을 합사한 견사를 사용하여 만든 비교적 두꺼운 평면직물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度支準折』에 有紋合絲紬라는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무늬가 있는 것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35)</sup>. 조선 후기에 편찬된 『林園經濟志』에는 영변·성천 등지에는 合絲紬가 있는데, 광택이 윤택하고 튼튼하고 두꺼워 최고의 것은 佳品

이라 칭한다고 하였다<sup>36)</sup>. 『度支準折』에 따르면 폭은 1尺3寸[61.1cm]으로, 緞 종류와 거의 유사할 정도의 넓은 폭으로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1尺당 가치는 藍色과 有紋의 黑色이 國良8錢이었다. <표 2>에서 藍合絲紬의 10000cm<sup>2</sup>당 가치는 약 諸良2兩7錢8分5厘로, 藍潞州紬·藍經光紬·藍花禾紬·藍方絲紬보다 2.7-4.7배 가량 높아 최고가 紬 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綿紬는 『朝鮮彙報』에 紬를 練한 것으로, ‘明紬’, ‘白明紬’, ‘熟紬’와 같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별기』에는 ‘면주’가 單裡衣·단속곳·바지·치마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度支準折』의 기록에 따라 <표 3·4>에서 10000cm<sup>2</sup>당 가치를 비교해보면 綿紬의 折價는 吐紬보다는 낮으나, 水紬와 鼎紬와는 동일하고, 紬보다는 높았다.

水紬는 중국 문헌에서 중국 호주 지방의 특산물이었으며 方絲紬가 紡絲로 제직하였던 것에 반하여 水紬는 散絲로 제직하였다고 하였다<sup>37)</sup>. 그런데, 『春香傳』에는 水紬가 成川 지방의 특산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sup>38)</sup>, 水紬는 중국산뿐만 아니라 국내산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彙報』에 평남 성천군산 명주를 成川紬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水紬와 成川紬가 동일한 직물일 가능성이 있으며, 『國譯萬機要覽』의 譯註에는 水紬와 水禾紬가 동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水紬·成川紬·水禾紬가 모두 동일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밖에 김영자는 수화주를 삼팔주와 동일한 것이라고 하였으나<sup>39)</sup> 『별기』에서 수화주와 삼팔주가 동일한 필체로 나란히 기록된 부분이 있어<sup>40)</sup> 이 두 가지를 동일한 직물로 보기는 어렵다. 『度支準折』에 따르면 水紬의 1尺당 折價는 白·眞玉·眞草綠·多紅·眞藍 등 색에 따라 錢4錢에서 8錢6分7厘 정도였다.

吐紬는 『林園經濟志』에 蠶家에서 退紉, 泔澁하여 만든 솜인 雪綿子로 실을 만들어 짜는데 질기고 따뜻하여 값이 보통 紬의 2배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up>41)</sup>. 이처럼 雪綿子, 즉 풀솜으로 製絲하였으므로 吐紬에 사용된 견사는 견방사였음을 알 수 있으며, 견방사는 함기율이 높기 때문에 보다 따뜻하였을 것이다. 또한 『度支準折』에 기록된 折價를 기준으로

로 <표 3>에서 吐紬·綿紬·紬의 10000cm<sup>2</sup>당 가치를 비교해 보아도 吐紬는 綿紬와 紬보다 가치가 높은 직물이었다.

그밖에 上紬와 中紬는 사용된 원사와 밀도·촉감·두께 등 제직상태에 따른 직물의 품질을 기준으로 구분한 紬의 명칭일 것으로 생각된다.

## (2) 紬 1疋의 길이와 폭

역사적으로 布帛尺의 치수가 시대별로 달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문헌에 기록된 직물의 길이와 폭은 해당 문헌의 편찬 연도에 따라 대략적인 수치로 미루어 짐작되어 왔다. 그러나, 『度支準折』에는 기준이 되는 布帛尺이 실제 크기로 실려 있어 각 직물의 길이와 폭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度支準折』을 분석하여 보면 <표 1>과 같이 紬는 종류에 따라 1疋의 길이와 폭이 다양하였다. 먼저 1疋 길이를 살펴보면 方絲紬는 16尺[752cm], 十兩紬는 19尺[893cm], 潞方紬는 22尺[1034cm], 紬·上紬·中紬·倭人禮單綿紬·勅使禮單綿紬·水紬·鼎紬는 35尺[1645cm], 貢紬·綿紬·經用綿紬는 40尺[1880cm], 吐紬는 50尺[2350cm]이었다<sup>42)</sup>.

한편 每疋의 폭을 살펴보면 저급인 그룹 B의 경우는 紬·上紬·中紬·倭人禮單綿紬·勅使禮單綿紬·水紬·鼎紬·貢紬·綿紬·經用綿紬·吐紬 모두 7寸[32.9cm]의 한가지로 통일되어 있었으며 소폭이었다. 반면에 고급인 그룹 A의 紬는 폭이 다양하면서 비교적 광폭이어서, 改只紬·花方紬·花紗紬·花禾紬는 8寸[37.6cm], 潞州紬는 9寸[42.3cm], 方絲紬·經光紬는 1尺[47cm]이었다<sup>43)</sup>. 특히 合絲紬와 西洋紋紬는 폭이 각각 1尺3寸[61.1cm], 1尺8寸[84.6cm]으로, 大緞과 동일하였거나 大緞보다 5寸[23.5cm]이나 더 넓었을 만큼 광폭이었다.

이처럼 그룹 A에 속하는 고급 紬는 대부분 폭이 40cm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출토평면직물들을 살펴보아도 40cm 이상의 광폭직물은 일반적으로 상등품의 필라멘트 견사를 사용하고 제직상태도 좋은 경향을 보인다<sup>44)</sup>. 따라서 향후 관련 자료가 더 나온다면 이러한 유형의 직물들과 그룹 A에 속하는 紬의 명칭들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서

수많은 평견직물에 보다 세분화된 명칭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폭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직물가의 전반적인 경향을 나타낼 뿐이며, 같은 색 내의 비교라

<표 1> 紬·絹·絹과綾·紗·羅·緞의 길이와 폭

직물유형	직물명	길이 (단위: 1尺)		폭			
		尺	cm	尺·寸	cm		
紬	그룹	紬·上紬·中紬·水紬·鼎紬 倭人禮單綿紬·勅使禮單綿紬	35	1645	7寸	32.9	
		貞紬·綿紬·經用綿紬	40	1880	7寸	32.9	
	B	吐紬	50	2350	7寸	32.9	
	그룹	改只紬·花方紬·花紗紬·花禾紬	-	-	8寸	37.6	
		潞方紬	22	1034	-	≒ 39-42	
		潞州紬	-	-	9寸	42.3	
		方絲紬	16	752	1尺	47.0	
		經光紬	-	-	1尺	47.0	
		A	合絲紬	-	-	1尺3寸	61.1
		西洋紋紬	-	-	1尺8寸	84.6	
十兩紬	19	893	-	-			
絹	絹	-	-	1尺1寸	51.7		
絹	熟絹·別紋庫英絹	30	1410	-	-		
絹	通絹	-	-	1尺	47.0		
綾	小綾	-	-	7寸	32.9		
	大綾	-	-	1尺1寸	51.7		
紗	廣紗	30	1410	-	-		
	走紗	-	-	8寸	37.6		
	紗	-	-	1尺3寸	61.1		
羅	杭羅	30	1410	-	-		
緞	冒緞·縮緞·禾緞	-	-	1尺2寸	56.4		
	大緞·賞賜緞	-	-	1尺3寸	61.1		

그밖에 潞方紬의 폭은 『朝鮮彙報』에 1尺3,4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朝鮮彙報』에서의 1尺은 『度支準折』과는 달리 지금의 약 30cm<sup>45)</sup>에 해당하는 당시의 일본 布帛尺을 기준으로 하였을 것이므로 潞方紬의 폭은 대략 39-42cm 정도였을 것이다.

(3) 紬의 가치

① 國民 또는 諸良이 기준인 紬 (그룹 A)

가치척도로 良, 즉 銀을 사용한 改只紬·輕光紬·潞方紬·潞州紬·綾只紬·方紬·方絲紬·西洋紋紬·十兩紬·即于紬·合絲紬·花方紬·花紗紬·花禾紬 등 고급 紬의 1尺당 가치는 최저 諸良1 匁1分(白無紋花紗紬)에서 최고 1兩(鴉青西洋紋紬)까지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각 직물의

할 지라도 그 값으로 서로 다른 직물 간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서로 다른 직물 간의 보다 정확한 가치비교를 위하여 <표 2>에서 폭이 기록되어 있고 같은 색 간의 비교가 가능한 직물에 한하여 10000cm<sup>2</sup>당 가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그룹 A에 속하는 紬의 10000cm<sup>2</sup>당 가치는 藍色과 草綠色을 기준으로 合絲紬 > 潞州紬 > 經光紬 > 花禾紬 > 紡絲紬의 순이었다. 合絲紬(諸良8匁/藍·黑有紋)와 綾只紬(諸良4匁5分/多紅)는 1尺당 가치가 같은 색의 다른 紬에 비하여 월등히 고가였는데, 綾只紬는 길이와 폭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合絲紬의 경우는 폭이 1尺3寸[61.1cm]으로 다른 紬에 비하여 2-5寸[9.4-23.5cm] 정도 넓은 것이 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표 2>에서 藍色을 기준으로

<표 2> 紬·絹·絹의 10000cm<sup>2</sup>당 가치 비교

	紬									絹	絹
	그룹 A						그룹 B				
	合絲紬	潞州紬	經光紬	改只紬	花禾紬	方絲紬	吐紬	綿紬 水紬 鼎紬	紬		
폭 (cm)	61.1	42.3	47.0	37.6	37.6	47.0	32.9	32.9	32.9	51.7	47.0
1尺 길이 (cm)	47	47	47	47	47	47	47	47	47	47	47
폭×길이 (cm <sup>2</sup> )	2871.70	1988.10	2209.00	1767.20	1767.20	2209.00	1546.30	1546.30	1546.30	2429.90	2209.00
藍色 1尺 가치	國良	8匁	2匁	2匁	-	1匁6分	1匁6分	-	-	-	2匁5分
	諸良	8匁	2匁	2匁	1匁5分	1匁3分	1匁5分	-	-	= 3分9厘2戶 (錢2匁4分5厘)	1匁3分
藍色 10000cm <sup>2</sup> 가치(諸良)	약	2兩7匁8分5厘	약	약	國良 약	약	약	-	-	약	國良 약
			1兩5厘	9匁5厘	8匁4分8厘	7匁3分5厘	6匁7分9厘			2匁5分3厘	5匁3分5厘
草綠 1尺 가치	國良	-	2匁3分	-	-	1匁6分	1匁5分	-	-	-	-
	諸良	-	2匁	2匁	3匁	1匁3分	1匁5分	= 7分4厘 (錢4匁6分2厘8戶)	-	-	1匁3分
草綠 10000cm <sup>2</sup> 가치(諸良)	-	약	약	약	약	약	약	-	-	약	-
		1兩5厘	9匁5厘	1兩6匁9分7厘	7匁3分5厘	6匁7分9厘	4匁7分8厘			5匁3分5厘	

10000cm<sup>2</sup>당 가치를 산출하여 다른 紬와 비교해 보아도 潞州紬·經光紬·改只紬·花禾紬·方絲紬 등에 비하여 2.7-4.1배 가량 가치가 높았다. 潞州紬는 <표 2>에서 藍色을 기준으로 合絲紬보다는 諸良1兩7匁8分 정도 가치가 낮지만 經光紬·花禾紬·方絲紬보다는 1匁에서 3匁2分 가량 비싸서 비교적 고급의 紬였다. 改只紬는 폭이 동일한 다른 紬들과 藍色을 기준으로 1尺당 가치를 비교해보면 花方紬·花紗紬·花禾紬보다 諸良2-3分 정도 가치가 높았다.

한편 鴉靑西洋紋紬는 1尺당 가치가 諸良1兩이나 되어 그룹 A 중에서도 최고가였지만 鴉靑色 외 다른 색의 가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같은 색의 다른 직물과 비교할 수는 없고, 다만 유사한 색인 藍色의 合絲紬·潞州紬와 10000cm<sup>2</sup>당 가치를 비교해보면 鴉靑西洋紋紬의 가치는 약 諸良2兩5匁1分4厘로, 藍合絲紬보다는 諸良2匁7分1厘 정도 낮은 가치를 지니지만, 藍潞州紬보다는 2.5배 정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 최고가 紬 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西洋紋紬는 10000cm<sup>2</sup>당 가치가 가장 높은 평견직물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 폭도 『度支準折』에 기록된 직물폭 중 가장 넓은 1尺8寸[84.6cm]이어서, 이 또한 최고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참고로 鴉靑西洋紋紬의 10000

cm<sup>2</sup>당 가치를 같은 색의 大緞(諸良3匁3分8厘)과 비교하여 보면 西洋紋紬는 大緞보다는 諸良7匁9分3厘 정도 가치가 낮다.

그밖에 동일한 직물 내에서도 색상에 따라 가치의 차가 나타나는 것은 각 색상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염료의 가격 및 양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②. 錢·米·木 기준인 紬 (그룹 B)

직물의 가치를 錢(折價)·米(元米)·木(質地木·質下地木·染玄木)를 기준으로 나타낸 紬·上紬·中紬·貢紬·綿紬·水紬·鼎紬·吐紬 등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良으로 나타낸 紬보다 저급의 紬였다. 1尺당 가치를 살펴보면 최저 諸良2分7厘3戶[≒錢1匁7分1厘](經用綿紬)에서 최고 1匁4分3厘5戶[≒錢8匁9分7厘2戶](大紅吐紬) 정도로, 그룹 B에서는 최고가에 해당하는 大紅吐紬도 그룹 A의 최저가 白無紋花紗紬와 비슷할 정도로 그 가치가 현격히 낮았다. 이러한 그룹 B의 紬들은 우리나라에서 직조한 토산 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폭이 7寸[32.9cm]으로 동일한 吐紬와 綿紬의 1尺당 折價를 비교하면 白色吐紬(錢4匁2分)가 白色綿紬(錢4匁)보다 높았고, 黃色吐紬(錢4匁5分4厘)도 黃色綿紬(錢4匁4分4厘)보다 높았다. 그런데, 두 직



물의 1尺당 길이는 吐紬가 綿紬보다 10尺[470cm] 길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 비교를 위하여 10000cm<sup>2</sup> 당 가치를 계산해보면 <표 3>에서 黃吐紬는 약 錢2兩9錢3分6厘, 黃綿紬는 약 錢2兩8錢7分1厘, 黃紬는 약 錢1兩5錢5分5厘이며, <표 4>에서 白吐紬는 약 錢2兩7錢1分6厘, 白綿紬는 약 錢2兩5錢8分6厘, 白紬는 약 錢1兩4錢7分4厘였다. 따라서 吐紬의 가치는 綿紬보다 약간 높으며, 紬보다는 2배 정도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林園經濟志』의 '吐紬의 가격이 보통 紬의 2배'라는 기록과 일치한다. 또한 <표 3·4>에서 綿紬의 가치가 紬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을 볼 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동일한 직물로 생각해왔던 綿紬와 紬는 서로 다른 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정확한 차이는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이다.

근거로 水紬 > 鼎紬 > 吐紬 > 綿紬의 순서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각 직물의 1尺당 길이와 폭의 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度支準折』에 따른 결과 즉, 吐紬 > 水紬=鼎紬=綿紬 > 紬의 순서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水紬 내에서도 升數에 따라 가치와 용도에 차이가 있었다. 백색을 기준으로 升數에 따른 가치는 9升水紬(質下地木9尺) > 8升水紬(質下地木8尺) > 水紬(質下地木7尺) 순이었으므로, 升數가 높을수록 고가이며 일반 水紬는 8升 미만의 水紬를 지칭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升數에 따른 용도를 살펴보면 9升水紬는 嬪 이하의 春秋衣禮에, 8升水紬는 善治守令의 表裡에, 水紬는 內人嘉禮時에 所用되어 升數가 높은 고가의 水紬일수록 계급이 높은 사람의 의복재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鼎紬도

<표 3> 吐紬·綿紬·紬의 10000cm<sup>2</sup>당 가치 비교 (黃色 기준)

	吐紬	綿紬	紬
폭(cm)	32.9	32.9	32.9
1尺의 길이(cm)	2350	1880	1645
폭×길이(cm <sup>2</sup> )	77315.00	61852.00	54120.50
黃色 1尺의 折價	22兩7錢	17兩7錢6分	8兩4錢2分
黃色 10000cm <sup>2</sup> 의 折價	약 錢2兩9錢3分6厘	약 錢2兩8錢7分1厘	약 錢1兩5錢5分5厘

<표 4> 吐紬·水紬·鼎紬·綿紬·紬의 10000cm<sup>2</sup>당 가치 비교 (白色 기준)

	吐紬	水紬	鼎紬	綿紬	紬
폭(cm)	32.9	32.9	32.9	32.9	32.9
1尺의 길이(cm)	47	47	47	47	47
폭×길이(cm <sup>2</sup> )	1546.3	1546.3	1546.3	1546.3	1546.3
白色 1尺의 折價	4錢2分	4錢	4錢	4錢	2錢2分8厘
白色 10000cm <sup>2</sup> 의 折價	약 錢2兩7錢1分6厘	約 錢2兩5錢8分6厘	約 錢2兩5錢8分6厘	約 錢2兩5錢8分6厘	約 錢1兩4錢7分4厘

한편 <표 4>에서 白綿紬·白水紬·白鼎紬는 모두 폭이 7寸[32.9cm]으로 같을 뿐만 아니라 1尺의 折價도 錢4錢으로 같아 세 직물의 가치는 동일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1尺의 경우 白綿紬(質下地木8尺)가 白水紬와 白鼎紬(質下地木7尺)보다 質下地木1尺 정도 가치가 더 높은 것은 1尺의 길이가 綿紬(長40尺[1880cm])가 수주와 정주(長35尺[1645cm])보다 5尺[235cm]이 더 길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萬機要覽』에 기록된 가격을

水紬와 마찬가지로 升數에 따라 가격과 용도에 차이가 있어 7升鼎紬는 嬪 이하의 春秋衣禮에, 鼎紬는 尙房衣禮別備忘內人에 사용되었다<sup>46)</sup>.

## 2) 綃

### (1) 綃의 명칭

綃의 명칭으로는 綃·生綃·練綃·熟綃·廣綃·宮綃·別紋庫英綃·雙綃·雙紋綃·雪漢綃·絲綃·漢京綃·畫綃 등 13종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무늬가 없는 것은 絹·廣絹·生絹·練絹·熟絹·畫絹이고, 別紋庫英絹·雙絹·雙紋絹 등은 이름에서 나타난 ‘紋’이라는 글자를 통하여 볼 때 무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絹는 『說文』, 『玉篇』, 『廣韻』 등에서 ‘生絲也’라고 하고, 『才物譜』에 生絲로 만든 薄縹이라고 기록되어 있다<sup>47)</sup>. 따라서 絹는 일반적으로 경·위사에 生絲를 사용한 것으로, 生絹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度支準折』에 기록된 絹의 가치를 분석한 <표 5>에서도 草綠·柳靑·紅·藍·黃 등에서 같은 색의 絹와 生絹는 대부분 가격이 같은 것을 보아도 일반적으로 絹라고 하는 것은 生絹일 것으로 생각된다.

熟絹는 『林園經濟志』에 상등의 繭絲를 삶아 정련하고 염색한 경·위사를 사용하여 치밀하게 직조한 것이며 광이 윤택하고 견고하기가 綾帛 등과 같다고 하였다<sup>48)</sup>. 이 기록을 통하여 熟絹는 선정련·선염색의 과정을 거쳐 만든 絹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선정련·선염색한 직물은 후정련·후염색한 것에 비하여 그 광택과 색이 은은하지만 이러한 제직·가공상의 미세한 차이를 구별해내기는 쉽지 않다. 또, 熟絹는 尙方工人이 만들며 그 중에서 구멍이 작고 경·위사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羅紋을 짠 것을 雙紋絹라고 하여, 縉紳·朝服에 사용한다고 하였다<sup>49)</sup>.

練絹는 ‘練’이라는 글자를 볼 때 熟絹와 마찬가지로 정련을 거친 絹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표 5>에서 熟絹보다 1尺당 가치가 諸良3里(白)에서 3分(草綠·紅) 정도 적은 것으로 보아 熟絹보다 간단한 공정 즉 후정련된 絹였을 것이다.

廣絹는 다른 絹에 비해 폭이 넓었던 絹를 이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인 絹의 폭이 1尺1寸[51.7cm]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廣絹는 폭이 1尺1寸[51.7cm] 이상이었을 것이다.

宮絹는 궁궐 내의 직조 기관에서 생산하였던 絹에서부터 유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彙報』에는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여러 직물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언급이 있으나 宮絹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이는 『朝鮮彙報』가 발간된 1915년 경에는 이미 궁의 직조 기관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궁에서 생산된 絹’라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불괴』에 궁초가 면복의 소재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宮絹는 絹 중에서도 최고급 絹였을 것이다. <표 5>에서 살펴보면도 宮絹의 가치는 藍이 諸良6錢, 柳靑이 諸良7錢으로 같은 색의 다른 絹에 비하여 월등히 고가였음을 알 수 있다.

別紋庫英絹는 별문이 있는 英絹의 일종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彙報』에 英絹[永絹]는 중국산 絹織物로 接永이라고도 하였으며, 무늬는 주자직, 바탕은 평직인 두꺼운 직물을 영초 혹은 영초단이라고 하였다. 毛絹보다 품질이 낮으나 바닥이 곱고 광택이 난다고 하였고, 無紋의 永絹는 無紋絹·無紋永絹·素永, 문양이 섬세한 永絹는 細紋英絹, 永絹보다 한 층 상등품은 중국산으로 杭永絹·杭永이라고도 하였다. 『불괴』에는 문양에 따라 별문영초와 접문영초가 있는데, 별문영초는 치마·소고의·저고리에, 접문영초는 주의 등에 사용되었다.

그밖에 畫絹는 회화를 그리는데 종이처럼 바탕으로 사용하였던 絹를 말하는 것이다.

## (2) 絹 1疋의 길이와 폭

<표 1>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絹의 길이와 폭은 각각 30尺[1410cm], 1尺1寸[51.7cm]의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어서<sup>50)</sup>, 紬가 종류에 따라 1疋의 길이가 16尺[752cm]에서 50尺[2350cm], 폭은 7寸[32.9cm]에서 1尺8寸[84.6cm]으로 매우 다양하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絹의 길이와 폭이 한가지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당시 실제로 絹의 길이와 폭이 모두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기록상 누락된 것인지 현재로서는 단정짓기 어려우나, 동일한 문헌의 기록임에도 紬의 경우는 길이와 폭이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기록상의 누락이기보다는 종류 자체가 紬만큼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길이와 폭 또한 다양하지 않았던 것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絹의 폭 1尺1寸[51.7cm]은 폭이 특별히 넓은 紬 즉 合絲紬와 西洋紋紬를 제외한 대부분의 紬보다 넓은 폭이었다. 이는 현재까지의 유물조사에서 통상 絹의 폭이 紬보다 넓었던 결과와 일치한다.

<표 5> 『度支準折』에 기록된 絹의 가치 - 國良 또는 諸良 기준 (1尺)

색	가치단위	가치
白	國良	廣絹(2疋5分) 熟絹(1疋6分) > 絹(1疋3分5里) > 練絹(1疋2分7里)
	諸良	廣絹(1疋5分2里) 絹(1疋3分) > 生絹(1疋2分7里)
草綠	國良	-
	諸良	別紋庫英絹(1兩) 熟絹(1疋6分) > 絹(1疋3分), 生絹((1疋3分), 練絹(1疋3分)
柳青	國良	-
	諸良	宮絹(7疋) > 絹(1疋 3分), 生絹((1疋3分)
紅	國良	-
	諸良	廣絹(1疋5分) 熟絹(1疋6分) > 絹(1疋3分), 生絹(1疋3分), 練絹(1疋3分)
紫的	國良	-
	諸良	熟絹(2疋), 絹(2疋)
鴉青	國良	-
	諸良	熟絹(1疋6分) > 絹(1疋3分)
藍	國良	-
	諸良	漢京絹(8疋) 宮絹(6疋) 雙紋絹(2疋 5分) 熟絹(1疋6分) > 絹(1疋3分), 生絹(1疋3分)
黃	國良	-
	諸良	熟絹(1疋4分) > 絹(1疋3分), 生絹(1疋3分)

(3) 絹의 가치

絹의 가치는 종류에 따라 다양하였으며, 고급 紬 수준과 유사한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표 5>에서 보면 대부분의 絹는 1尺당 가치가 諸良1疋2分7里에서 2疋5分 정도이지만, 漢京絹(諸良8疋/藍), 宮絹(諸良7疋/柳青, 諸良6疋/藍), 雪漢絹(諸良6疋/柳綠·草綠, 諸良5疋5分/白)는 다른 絹에 비해 월등히 고가이며, 특히 草綠別紋庫英絹는 諸良1兩으로 최고가이다. 別紋庫英絹의 경우 폭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폭을 『度支準折』에 기록된 직물폭 중에 가장 넓은 폭인 1尺8寸[84.6cm]으로 가정하고 10000cm<sup>2</sup>당 가치를 산출해보더라도 그 가치가 약 諸良2兩5疋1分4里나 되어 최고가의 紬인 合絲紬보다 약간 낮은 정도이므로 合絲紬·西洋紋紬와 함께 최고가의 평견직물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고가의 絹는 상등품의 경·위사를 사용하여 평직 이외에 여러 특수한 수공이 많이 드는 최상급 絹였을 것이다.

출토보고서<sup>51)</sup> 등에 자주 등장하는 雪漢絹도 1尺당 가치가 諸良5疋5分(白), 諸良6疋(柳綠·草綠) 정도로, 宮絹의 가치 諸良7疋(柳青), 諸良6疋(藍)과 비슷하여 고가의 絹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별곡』에 소고의·저고리로 사용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또 絹와 生絹의 가치를 살펴보면 白(諸良1疋2分7里)을 제외한 草綠·紅·粉紅·柳青·藍·黃 등의 염색한 것은 折價가 모두 諸良1疋3分으로, 다른 직물과는 달리 염색한 것과 白色의 가격차가 3里 정도로 매우 작은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熟絹는 같은 색의 경우에도 生絹와 練絹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게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熟絹와 練絹는 다른 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熟絹는 실을 선정·선염 색한 후 직조하는 복잡한 공정을 통하여 만들었고, 값이 싼 練絹는 직조한 후에 정련하는 보다 단순한 공정을 통해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다른 여러 직물에서도 정련·염색 과정에서 비롯되는 제직방법의 차이에 따라 가치 등에 차등을 두어 다른 명칭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3) 絹

『度支準折』에 기록된 絹은 <표 6>과 같이 銅絹·通絹·厚紙絹 3종뿐인데, 이는 조선 말기에 紬·絹에 비하여 絹의 종류가 현격히 줄어들었고, 그 자리에 고급화된 紬가 다양한 명칭으로 들어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sup>52)</sup>.

<표 6> 『度支準折』에 기록된 絹

직물명	색	단위길이	가치	
			國良	諸良
銅絹	柳綠	1尺	-	3錢
通絹	白	1尺	-	2錢 5分
	藍	1尺	2錢 5分	-
	黃	1尺	-	2錢 5分
	黑	1尺	3錢	諸同
厚紙絹	藍	1尺	-	1錢 8分

厚紙絹은 일본의 富士絹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富士絹은 1906년(明治 39)경 일본의 富士方績株式會社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후지기누[富士絹, ふじぎぬ]라고 하였으며, 후니기누[不二絹, ふにぎぬ]라고 쓰기도 한다<sup>53)</sup>. 이처럼 富士의 일본어 발음인 ‘후지[ふじ]’와 유사하게 ‘厚紙’라고 명명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富士絹은 경·위사 모두 絹紡絲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직조한 후 보푸라기[毛羽]를 태우고, 정련·표백하여 만든 것이다<sup>54)55)</sup>. 大正末期까지는 경·위사 모두 紡績雙絲를 사용하였으나, 그 후에 위사만 單絲를 사용한 것도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실은 경사에 140番의 雙糸 혹은 92番의 雙糸를 사용하고, 위사에는 경사와 같은 雙絲를 사용한 것과 66番 單糸를 사용

한 것이 있다<sup>56)</sup>. 밀도는 하부다에보다 밀도가 약간 성글고, 曲尺은 5분에 경사 51-68本, 위사 4 1-51本정도이며, 폭은 대체로 29in가 표준이지만 36in인 것도 있다<sup>57)</sup>. 상등의 것은 언뜻 보기에 羽二重[하부다에, はふたえ]처럼 보이지만 광택이 羽二重보다 조금 못하며, 중첩시켜 겹쳤을 때 조금 달라 붙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흐린 크림색을 띠는 것이 羽二重와 다른 점이다<sup>58)</sup>.

絹의 가치는 諸良1錢8分(藍厚紙絹)에서 2錢5分(白通絹) 정도로, 비교적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3종류의 絹 중 通絹의 폭만이 1尺[47cm]으로 기록되어 있고 銅絹과 厚紙絹은 폭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전체 가치를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으나 폭의 차이를 무시하고 藍色을 기준으로 1尺당 가치를 紬와 비교하여 보면 通絹(諸良2錢5分)은 廣絹(諸良2錢5分)와, 厚紙絹(諸良1錢8分)은 改只紬·方絲紬·十兩紬(諸良1錢5分)와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폭이 기록되어 있는 通絹의 경우 <표 2>에서 紬·絹와 비교해 보면 10000cm<sup>2</sup> 당 가치가 약 國良1兩1錢3分1리로, 이는 그룹 A의 고급 紬 중에서도 西洋紋紬·合絲紬 다음으로 가치가 높은 潞州紬보다도 약간 높은 정도의 가치이다. 따라서 絹의 경우 종류는 극히 적었으나 고급 평견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度支準折』에는 많은 종류의 평견직물이 기록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록된 빈도 수가 높고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 현 시점에서 특성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다고 판단되는 紬·絹·絹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度支準折』과 기타 문헌들을 통하여 규명할 수 있었던 조선 말기 평견직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度支準折』에 기록된 평견직물은 紬 22종, 絹 13종, 絹 3종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 전기까지는 絹의 종류가 다양한 반면 紬는 세분화된 명칭이 없었으나, 조선 말기에는 오히려 紬의 명칭이 세분

화되어 그 종류가 많아졌고 絹은 점점 사라져, 紬·絹만 남게 되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특성을 규명한 평건직물은 다음과 같다. 改只紬에서 '改只'는 깨끼를 의미하므로, 改只紬는 솔기를 주로 곱솔로 처리하는데 사용하였던 紬의 일종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潞州紬는 중국 山西 城 路安 지방에서 생산되었던 고급 紬로, 상등품의 견사를 사용하여 지질이 치밀하고 촉감이 부드러운 직물이었다. 潞方紬도 중국 路安산 紬로, 方形의 공간이 있는 성근 직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方絲紬는 중국 湖州의 특산물로, 견방사의 일종인 紡絲로 제작하였던 직물이었다. 十兩紬는 직물의 무게에 따른 명칭으로 추측되며 六兩紬·八兩紬 등에 비하여 밀도가 높고 무거워 비교적 고가의 紬였을 것이다. 合絲紬는 경사 또는 위사에 2올 이상을 합사한 견사를 사용하여 광택이 윤택하고 견고하며 두꺼운 직물로 최고가의 紬였다. 水紬는 중국 호주 지방과 우리나라 成川 지방의 특산물로, 散絲로 제작하였던 직물이었다. 吐紬는 雪綿子로 실을 만들어 질기고 따듯하였기 때문에 값이 보통 紬의 2배였던 고급 紬였다.

熟絹는 상등의 繭絲를 삶아 선정련·선염색한 경·위사를 사용하여 치밀하게 직조한 것으로 광택이 좋고 견고한 직물이었으며, 練絹는 후정련·후염색된 絹로 생각된다. 窩絹는 궁궐 내의 직조기관에서 생산한 絹였을 것이다. 別紋庫英絹는 別紋이 있는 英絹의 일종으로 무늬는 주자직, 바탕은 평직이며, 바탕이 곱고 두꺼우며 광택이 있었다.

厚紙絹은 1906년경 일본의 富士方績株式會社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경·위사 모두 絹紡絲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직조한 후 보푸라기를 태우고, 정련·표백하여 만든 것이다.

셋째, 『度支準折』에 기록된 가치와 가치척도의 차이에 따르면 紬는 絹와 絹에 비하여 직물의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치가 최저급부터 최고급까지 매우 다양하여 그 품질이 보다 다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紬는 고급인 그룹 A와 저급인 그룹 B로 구분할 수 있는데, 改只紬·輕光紬·潞方紬·潞

州紬·綾只紬·方紬·方絲紬·西洋紋紬·十兩紬·卽于紬·合絲紬·花方紬·花紗紬·花禾紬는 고급 紬였으며, 紬·上紬·中紬·貢紬·綿紬·水紬·鼎紬·吐紬 등은 저급의 紬였다. 반면에 絹와 絹은 직물의 종류는 紬만큼 많지 않았지만 모두 고급 紬 수준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한편 최고가의 평건직물은 合絲紬·西洋紋紬·別紋庫英絹 등이었다.

넷째, 『度支準折』에는 기준이 되는 布帛尺의 실제 크기와 직물의 길이 및 폭이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 사용되었던 각 직물의 길이와 폭을 현대의 cm단위로 산출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度支準折』에 따르면 紬는 1疋의 길이와 폭이 다양한데, 먼저 1疋의 길이는 16尺[752cm]에서 50尺[2350cm]이었다. 또 폭은 그룹 B의 저급 紬는 소폭으로 7寸[32.9cm]이었고, 그룹 A의 고급 紬는 광폭으로 8寸[37.6cm]에서 1尺[47cm] 정도였는데, 특히 넓은 西洋紋紬는 1尺8寸[84.6cm]이나 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하여 絹의 길이와 폭은 각각 30尺[1410cm], 1尺1寸[51.7cm]의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었다. 특히 絹의 폭은 1尺1寸[51.7cm]으로 合絲紬와 西洋紋紬를 제외한 대다수의 紬보다 조금 넓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유물조사에서 통상 絹의 폭이 紬보다 넓었던 사실과 일치한다.

지금까지 조선 말기의 다양한 직물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면서도 가장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평건직물 즉 紬·絹·絹의 명칭·가격·직물 폭·용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각 직물의 미세한 차이를 규명하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 자료가 보충되면 본 연구를 기초로 더욱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紗·羅·緞 등 다른 여러 직물에 대한 연구는 향후 이루어져야 될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1) 度支部. 度支準折.
-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진흥연구사업 운영위원회 편 (1994). 古文書集成 12.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3) 朝鮮總督府 (1915). 朝鮮彙報, 3月.
- 4) 박성훈 (1999). 度支準折의 借名 表記 研究. 한자한문 교육, Vol.5, p. 186.
- 5) 陳維稷 主編 (1984). 中國紡織科學絲綢技術史. 北京: 科學出版社, pp. 91-94.
- 6) 조효숙 (2001). 인평대군과 의원군일가 출토직물에 관한 연구.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서울: 경기도박물관, p. 148.
- 7) 조효숙 (1993). 韓國絹織物研究.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 109-113.
- 8) 세종실록 권27, 7년 2월 11일(신해). 使臣內官尹鳳朴 實入京 (하략).  
세종실록 권27, 7년 2월 14일(갑인). 尹鳳以貿易 (중략) 極細紫綠白蘇細價彩絹十匹狐皮價生官絹二十匹 (하략).  
세종실록 권27, 7년 2월 22일(임술). 尹鳳所出 (중략) 彩絹十匹給紫色紬四匹鴨頭綠紬四匹白紬三匹共計十一匹領 (중략) 兩使受之喜.  
성종실록 권110, 10년 윤10월 9일(신유). 使臣曰 (중략) 我出來時有一族親寄絹一匹要買紫染綿紬.
- 9) 정조실록 권2, 즉위년 10월 27일(을축). 賜朝鮮國王妃 禮物大蟒緞二疋 (중략) 紡絲紬四疋 (하략).  
정조실록 권15, 7년 2월 27일(무자). 參宴諸臣並皆賞 賜亦及於臣等賜臣鄭存謙錦三匹漳絨三匹小卷八絲緞五匹小卷五絲宮紬五匹 (중략) 臣洪良浩錦一匹 (중략) 小卷五絲宮紬三匹 (하략).  
순조실록 권5, 3년 2월 27일(임진). 詔曰皇帝勅諭朝鮮 國王 (중략) 計開大蟒緞二疋 (중략) 紡紗紬四疋紗四疋 (하략).
- 10) 조효숙 (2001). 앞의 글, p. 148.
- 11) 高春明 編著 (1996).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p. 502.
- 12) 王壯穆 主編 (1996). 中國絲綢辭典. 北京: 中國科學技術出版社, pp. 148-155.
- 13) 중종실록 권97, 36년 12월 29일(경진).
- 14) 세종실록 권36, 9년 10월(계미).
- 15) 민족문화추진회 편 (1977). 五洲衍文長箋叢稿.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2.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873.
- 17) 위의 책, p. 873.
- 18) 서울대학교규장각 (1995).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續集 史部2.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p. 138.
- 19) 직물의 가치척도 기준이 다양한 관제로, 가치비교는 기준이 같은 경우들을 위주로 하였다. 또, 같은 유형 내에서도 폭이나 색상이 다양하여 동일선상에서의 통합적 가치척도는 불가능하였고, 폭이 제시된 경우나 같은 색 간의 제한적 비교만이 가능하였다.
- 20) 染折은 물감에 대한 절가를 말한다.
- 21) 元米는 세금이나 공물로 받아들인 원래의 쌀을 말한다.
- 22) 地木은 품질이 좋은 무명을 말한다.
- 23) 下地木은 품질이 낮은 무명을 말한다.
- 24) 染玄木은 검정빛의 물을 들인 무명을 말한다.
- 25) 度支部. 앞의 책, p. 156.  
〈그림 1〉과 같이 5寸의 實長 23.5cm가 그려져 있어 1尺의 길이가 47cm임을 알 수 있다.
- 26) 이은경 (1994). 韓國과 中國의 布帛尺에 關한 研究.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89.
- 27) 紡絲紬(白)의 1尺당 가치는 良(諸良1錢4分)과 折價(錢8錢7分5厘)의 2가지 단위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이 두 수치는 紡絲紬(白) 1尺의 가치를 나타낸 것이므로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수치가 동일함을 이용하여 비례식을 세우면 良과 折價의 서로 다른 두 가치척도를 각각 서로의 척도로 환산할 수 있다. 이러한 환산을 통하여 가치 단위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그룹 A와 B를 동일 선상에 놓고 가치를 비교해 볼 수 있다.
- 2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2c). 한국한자어사전 3.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p. 940.
- 29) 박성훈 (1999). 앞의 글, p. 192.
- 30) 高春明 編著 (1996). 앞의 책, p. 502.
- 31) 위의 책, p. 502.
- 32) 송시열 (1689). 宋書續拾遺 附錄 卷2.
- 33) 亞細亞文化社 編 (1974). 譯語類解. 서울: 亞細亞文化社, p. 151.  
『譯語類解』에 의하면 絹 종류는 '깁'이라는 한글 뜻이 기록되어 있으나, 紬 종류는 중국 한자 발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34) 일제강점기인 昭和5年 3월에 발행된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의 1寸은 약 3cm 정도로 환산된다.
- 35) 度支部. 앞의 책, p. 6.
- 36) 서울대학교고전간행회 편 (1966a). 林園經濟志 1. 서울: 서울대학교고전간행회, p. 504.
- 37) 高春明 編著 (1996). 앞의 책, p. 502.
- 38) 이상보 주해 (1993). 睿宗傳. 서울: 범우사, p. 19.
- 39) 김영자 외3 (1999). 19·20世紀 出土服飾과 풍속. 朝鮮時代服飾研究. 서울: 학연문화사, p. 131.

- 4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진흥연구사업 운영위원회  
編 (1994). 앞의 책, p. 6, 23.
- 41) 서울대학교고전간행회 編 (1966a). 앞의 책, p. 504.
- 42) 度支部. 앞의 책, p. 6, 10-13.
- 43) 위의 책, p. 3.
- 44) 인평대군파 의원군 일가 출토직물에서 No.14(숨바지  
겉감:40cm), No.24(대창의 겉감:40.5cm), No.48(바지  
겉감:44cm)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 45) 朝鮮總督府 (1930).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 p. 5.
- 46) 度支部. 앞의 책, p. 9.
- 47) 한국학문헌연구소 編 (1980). 才物譜. 서울: 亞細亞  
文化社, p. 622.
- 48) 서울대학교고전간행회 (1966a). 앞의 책, p. 501.
- 49) 위의 책, p. 504.
- 50) 度支部. 앞의 책, p. 3, 9-10.
- 51) 고부자 (1993). 高陽市 幸信洞 出土 陽川許氏 遺物小  
考. 韓國服飾. Vol.11, p. 147, 150, 152. No.7596(삼회장  
저고리), No.7599(누비저고리), No.7601(누비치마).  
박성실 (1994). 天安出土 豊山洪氏 遺物小考. 韓國服  
飾. Vol.12, p.133, 142. No.7765(겹중치막), No.7766(겹  
중치막). No.7788(겹금).
- 52) 조효숙(2001). 앞의 글, p. 149.
- 53) 寺田商太郎 (1986). やさしい織物の解説. 東京: 纖維  
研究社, pp. 198-199.
- 54) 中村耀 (1955). 纖維の實際知識. 東京: 東洋經濟新報  
社, p. 245.
- 55) 菱山衡平 (1933). 衣服材料の基礎知識. 東京: 文光  
社, p. 536.
- 56) 寺田商太郎 (1986). 앞의 책, p. 199.
- 57) 위의 책, p. 199.
- 58) 위의 책, p. 199.